

## 보도자료

### 현대차-기아, 전기차 전환 평가에서 세계 20 대 제조사 중 13 위에 그쳐

- 배터리 충전 시간, 주행 가능 거리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 받았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전기차 전환 비전 부문에서 낮은 점수 기록
- 테슬라, 비야디가 리더 그룹에, 최하위 등급 받은 6 개 제조사 중 5 개는 일본 브랜드

현대자동차-기아가 전 세계 20 대 자동차 제조사 중 전기차로의 전환 평가에서 100 점 만점 중 38 점을 기록해 13 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낮고, 전기차 전환에 대한 전략적 비전 등이 부족해 종합 평가에서 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다.

디젤 게이트 폭로로 잘 알려진 미국의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전 세계 20 개 주요 제조사들(승용차 및 상업용 경량 자동차(light-duty vehicle) 글로벌 판매량 기준 상위 20 개 브랜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보고서 <2022 세계 자동차 메이커 순위: 누가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는가?> 를 우리 시간 31 일(수)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전기 차량은 충전 속도 면에서 75 점(100 점 만점)을 기록, 테슬라에 이어 2 위에 올랐고, 주행 가능 거리 평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73/100)으로 평가됐다. 배터리 재활용 및 리퍼포징 항목에서는 최고 점수(100/100)를 받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구매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11/100)를 받았고, 다른 제조사에 비해 낮은 전기차 판매 목표를 세워 전략적 비전 항목에서도 낮은 점수(20/100)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 현대차-기아는 종합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 지페이 양(Zifei Yang) 프로젝트 매니저 겸 승용차 프로그램 책임자는 “현대차-기아는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다른 주요 글로벌 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고, 높은 성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제조 공정에서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 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Table 6. Overall scores, The Global Automaker Rating 2022

	2022 rating		MARKET DOMINANCE			TECHNOLOGY PERFORMANCE						STRATEGIC VISION			
			ZEVe sales share	ZEV class coverage	Pillar score	Energy consumption	Charging speed	Driving range	Renewable energy	Battery recycle/ repurpose	Pillar score	ZEV target	ZEV investment	Executive compensation	Pillar score
Tesla	83	LEADERS	100	38	69	100	100	100	0	100	80	100	100	100	100
BYD	73		69	88	78	74	38	73	0	100	57	70	79	100	83
BMW	56	TRANSITIONERS	12	50	31	72	52	76	100	92	78	72	20	80	57
VW	53		10	88	49	60	51	82	75	49	63	92	23	26	47
Stellantis	50		8	88	48	28	36	28	0	98	38	81	9	100	63
Geely	48		23	88	55	45	32	68	9	100	51	71	46	0	39
Renault	47		11	75	43	49	13	32	0	90	37	100	45	37	61
Mercedes-Benz	45		10	63	36	55	41	73	50	43	53	96	34	12	47
GM	45		2	38	20	53	31	78	0	99	52	96	36	57	63
SAIC	44		31	100	65	49	0	0	0	90	28	37	81	0	39
Great Wall	38		10	75	43	55	15	30	0	100	40	92	5	0	32
Ford	38		4	25	14	26	49	95	14	91	55	96	36	0	44
Hyundai-Kia	38	8	63	35	32	75	73	11	100	56	39	20	0	20	
Chang'an	36	16	88	52	45	4	19	0	0	13	68	56	0	41	
Toyota	30	LAGGARDS	1	63	32	43	35	70	6	59	43	39	7	0	15
Honda	28		0	38	19	51	26	52	0	32	32	73	24	0	32
Nissan	27		4	63	33	19	12	29	0	31	18	60	24	7	31
Tata	27		6	25	15	87	3	21	6	87	41	52	18	0	23
Mazda	10		1	13	7	0	19	3	0	0	4	30	25	0	18
Suzuki	0		0	0	0	N/A	N/A	N/A	0	0	0	0	0	0	0

한편 이번 평가에서, 테슬라와 비야디(BYD)가 선두 그룹을 형성한 반면, 토요타를 비롯해 주요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뒤쳐진 모습을 보였다. 최하위 그룹에 속한 6 개 제조사 중 5 개가 일본 브랜드로 조사됐다. 한편, BMW 와 폭스바겐은 전기차로의 전환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올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각 제조사의 현재 주요 시장 내 위치, 기술 성과, 향후 탈탄소화에 대한 전략적 비전 등을 평가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는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등 6 개 시장에 관한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평가된 20 개 제조사는 이들 6 개 시장 내 매출의 89%를 차지하며, 전 세계 매출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의 모델링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2 °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운송 부문에서 2035 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승용 및 상업용 경량 자동차들이 거의 100% 무공해 차량(ZEV)으로 전환돼야 한다.

**보고서 링크:** <https://theicct.org/publication/the-global-automaker-rating-2022-may23/> (엠바고 이후 열람 가능)

**언론 문의:**

Michael Doerrer & Kelli Pennington: [communications@theicct.org](mailto:communications@theicct.org)

### **국제청정교통위원회에 대해**

2001년 설립된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으로, 수준 높고 편향되지 않은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한 기술·과학적 분석 결과를 환경 규제 기관에 제공한다. 도로, 해상, 항공 운송의 친환경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공중 보건에 기여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